

거리에 앉은 남자

사람들이 길 비켜주는

송례문 앞 삼성프라자 건물 아래

한 남자가 비스듬히 누웠듯 앉아 있다

언제나 그 자리, 북데기 단 같은 모습

싱싱한 삶의 바다에서 밀려 나온 그가

할 수 있는 것은,

빙빙 돌아가는 네거리에서 도인처럼

누더기 걸치고 앉아 길을 찾는 일이다

동전 한 닢 던지는 이 없는 차가운 거리

아무리 둘러봐도 빈 손바닥

한때는 빌딩 숲 어느 뼈대였을 그 남자

파카 잠바 누비바지 겹겹이 껴입고도

등이 시린 세상

복달임하는 염천 대낮

거리에 앉은 남자는 춥다

춥기만하다

🔄Revision #1

★Created 8 March 2025 07:44:14 by 강근숙

✎Updated 8 March 2025 07:45:01 by 강근숙